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근대의식의 양상 — 주요 단편과 『무정』·『사랑』을 중심으로 —

김 종 회*

요 약

이 연구는 이광수와 그의 문학에 나타난 근대의식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표를 두었다. 당대의 시대적 환경과 작가로서의 대응방식은 모두 근대성 또는 근대의식이라는 명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에, 이는 한국 근대사와 문학사의 의미를 유기적으로 탐색하는 일이 된다. 그리하여 먼저 그 시대와 작가 및 작품세계를 살펴보고, 근대적 계몽기의 한 시대를 흥미하며 작가로서의 생애 절반을 일관한 근대의식이 어떻게 소설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대상작품으로 주요 단편들과 장편 『무정』 및 『사랑』을 선택하였는데, 이들이 이광수 문학의 근대의식과 그 다양한 양상을 가장 잘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광수의 단편들은 장편에 비해 주목을 덜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단편의 수에 비해 장편이 더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편들보다 장편들이 미학적 성취도가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의 단편 역시 당시로서는 선구적이었으며 가장 현대적이고 참신한 문장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편소설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 그 정도의 소설 형식을 취했다는 점만으로도 선구자적인 공적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는 이광수의 광목할만한 단편 8편을 살펴보았다. 이 단편들은 그동안 연구자들의 주목을 많이 받은 작품을 가려 뽑았다. 근대성의 언덕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향방을 비추는 불빛으로서 그 자격이 약여한 작품들이다.

한국문학에 있어 신소설을 넘어 근현대문학의 시발을 일린 장편 『무

*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정』은, 시대의식과 민중의 고민을 포착한 리얼리즘의 소설이 아닌 계몽문학 또는 이상주의 문학으로 규정되고 또한 내용과 형식면에서 신소설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세련된 언문일치의 문장으로 구성이나 대화 장면 묘사 등 현대소설적인 조건을 갖추고 봉건적 잔재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3·1 운동 이후 새로운 한국 소설을 가능케 한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이 소설에 나타난 근대의식은 이광수 개인의 것이기 보다는 당대 사회가 새롭게 변화하는 그 방향과 축수를 그려낸 하나의 상징에 해당하는 것이다.

『무정』이 그러했던 것처럼 장편소설 『사랑』 또한 고소설이나 신소설의 전통적 서술 방식에 젖어 있던 당대의 문학적 감각에 일대 혁신을 요구했다. 이광수가 개간하고 있던 미지의 세계와 그 도구로서의 대사 및 묘사의 방법 등속은, 가히 획기적이고 폭발적인 감응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이를 축약하여 우리 문학의 근대성을 개척한 공로로 일컫는 것이며, 비록 오늘날의 세련된 시각으로 검증할 때 삼류 통속소설의 외양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확정된 성과로 인하여 이광수와 그의 문학을 우리 문학사의 소중한 한 징검다리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주제어: 이광수, 개화기, 근대의식, 무정, 사랑

목차

1. 서론
2. 시대와 작가, 축적된 연구사의 의미
3. 개화 세대의 선구로서 주요 단편들
4. 근대의식의 구체적 양상과 두 장편
5. 결론

1. 서론

춘원 이광수는 삶과 문필 양면에 걸쳐 우리 근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형성하였고, 그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지금까지 방대한 부피로 집적되어 있다. 근대문학의 초입을 화려하게 장식한 광영이 그의 문인가 하면, 일제의 지배 체제에 영합한 궤절이 강고한 명어로 그를 강박하고 있기도 하다. 신소설로부터 근대소설로 넘어오는 관문이 된 『무정』을 시발로 하여, 그의 작품들은 문학을 통한 현실의 개량이라는 시대사적 명제를 추구하고 시제 및 대명사의 활용과 같은 표현 방법이나 근대적 문체의 확립 등 문학 기법의 진보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개화 세대의 계몽사상가로서 민족의식을 주창하고 숙명론에 물든 인생관의 탈피와 자유연애주의의 신장을 계도하는 한편,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분과 관념 편향의 오랜 관습을 타파한 창작 정신의 주체로서만 그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면, 그는 어렵지 않게 그를 최상급의 수식어로 치장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 흔하게 목도할 수 있는 성격, 구성상의 일관성 결여라든지 치명적인 단점으로 비판되는 역사의식의 실종 및 개인적 윤리와 사회적 윤리의 혼동 등의 항목도, 당대 문학에 미친 광범위한 교화력이나 감응력을 뒤흔개로 하여 가려두는 데 보다 관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용의 평가를 완강하게 가로막는 걸림돌은 언제나 근시안적 오관에 의거한 친일 행각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광수의 작품들은 작품 자체로서의 생명력보다는 창작 환경과 결부되어 그 효용성이 감정되는 상황을 야기하게 되었고, 이는 다분히 감정적인 요소가 작품의 해명에 개입할 수 있다는 측면과 당대에 그가 점유한 지도적인 위치로 보아 작품이 작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측면을 거멸못처럼 동시에 끌어안게 된 셈이다.

이광수는 끊임없이 자신이 일개 문사가 아님을 강변했다. 문학이

라는 특정한 분야에 입지를 둔 문사가 시대의 조류를 포괄적으로 통어해 보려는 논객이라는 지위에 비추어 얼마만한 한정성을 갖게 되는지 깊이 따져 보아야 할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의 마지막까지 문사였고, 때로는 문사 이상이였다. 이와 같은 유형의 자기기만이 시각의 불안정성을 초래했고 동시에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격변의 역사가 너무 높은 파고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이광수야말로 온갖 영광 가운데에서도 극심한 상처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불운한 운명의 주인이었던 것이다. 그러할 때 그가 “너무 늦게 또는 너무 빨리 태어난 세대 풍속 비판가이며 만약 그의 시대가 영·정조 때나 1945년 이후였다면 문제없이 최고의 작가였을 것”이라는 김봉구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광수와 그의 문학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주요한 소설 작품에 나타난 근대의식의 양상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가 처한 시대적 환경과 작가로서의 대응방식이 모두 근대성 또는 근대의식이라는 명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먼저 그 시대와 작가 및 작품세계를 살펴보고, 근대적 계몽기의 한 시대를 풍미하며 작가로서의 생애 전반을 일관한 근대의식이 어떻게 소설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검토하려 한다. 대상 작품으로는 그가 남긴 주요 단편들과 장편 『무정』 및 『사랑』을 선택하였다. 이 작품들이 이광수 문학의 근대의식과 그 다양한 양상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광수의 문학적 근대의식을 구명함으로써, 우리 근대문학 초입의 문학사적 계기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2. 시대와 작가, 축적된 연구사의 의미

이광수는 1892년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출생하였다. 어릴 때부터 남달리 명석하여 5살 때 이미 '천자문'을 깨우쳤다. 10살 되던 해 부모가 콜레라로 8일 사이에 차례로 사망하여 홀지에 고아가 되었다. 1905년 천도교 장학생 자격으로 일본 유학하여 메이지학원을 졸업했으며, 오산학교 교원을 지냈다. 이 무렵부터 《대한홍학보》와 《소년》에 시, 평론, 소설 등을 발표하면서 작가생활을 시작했다. 1915년 와세다대학 철학과에 입학했고, 1917년 최초의 단편소설 『소년의 비애』, 『어린 벗에게』를 《청춘》에 발표했다.

그 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 『무정』을 《매일신보》에 연재하며 신문학의 개척자가 되었고 그 시기에 쓴 신생활론, 자녀중심론 등 반봉건사상을 고취하는 계몽적인 평문들은 청년 지식층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무정』이 발표되던 시기는 서구 문물의 수용으로 우리 민족이 개화 의식에 눈뜨기 시작하던 때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항쟁이 공존하던 시대이다. 문학적 측면으로는 신소설의 등장에 이어 근대소설이 출발하게 되는 시기이다. 1919년 1월에는 도쿄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후 와세다대학을 중퇴하고 상해로 탈출해 안창호를 도우며 임시정부에서 활약하지만, 1921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귀국한다. 그때부터 1910년대에 지냈던 진보성을 상실하고 봉건적이며 친일적인 문필활동과 행적을 보이기 시작한다.¹⁾

1922년 《개벽》지의 『민족개조론』, 이듬해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되어 1924년에 발표한 『민족적 경륜』 등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비난을 받게 된다. 1933년 조선일보 부사장이 되어 1937년

1)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한길사, 1986.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안창호 등과 함께 수감되지만 반 년 만에 병보석으로 석방된다. 1939년에 조선문인협회 회장이 되었고,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친일 연설을 하며 각지를 유세했다. 8·15해방 후에는 친일파로 지목되어 양주의 봉선사와 사릉의 농가로 전전하며 은신하다 1949년에 반민법으로 구속되지만 병보석되고, 한국전쟁 중 납북되었다.²⁾ 그 다음의 행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광수는 오산학교에 다니던 1913년에 『툼아저씨의 오두막』 초역본인 『검둥의 설움』을 간행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단행본 출간이 된다. 그 뒤 《매일신보》에 글을 쓰기 시작하여 1917년 신년호부터 6월 14일까지 총 126회의 『무정』을 연재, 근대소설의 효시란 칭호를 받게 되고 청년계층의 비상한 관심을 얻는다. 「소년의 비애」, 「윤광호」 등의 단편을 발표하게 된 것도 이 무렵이며 1917년 11월에는 두 번째 장편 『개척자』를 다시 《매일신보》에 연재한다. 그리고 얼마 후 상해로 이동하여 잠시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의 주필이 되었지만 1921년 3월에 귀국, 열악한 민족성을 개조하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는 「민족개조론」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글이 《개벽》지에 실린 후 이 출판사가 기슭을 받는 등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³⁾

그 뒤 발표된 작품들은 대개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들이었다. 1923년 《동아일보》의 「가실」은 『삼국사기』에 있는 소재를 이용했고, 《개벽》지의 「거룩한 죽음」은 최제우의 최후를 성스럽게 그렸다. 32세 되던 해에는 《동아일보》 객원이 되어 도산 안창호를 모델로 한 『선도자』를 연재했고 많은 논설을 쓰게 되는데, 이어 『허생전』, 『재생』, 『춘향전』, 『혁명가의 아내』 등을 연달아 연재하여 많

2) 김재용 외, 『한국 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197면.

3) 한승욱, 『이광수 연구』, 선일문화사, 1984.

은 독자를 확보하였다. 이 중 1924년부터 1925년까지 연재한 『재생』은 그의 야심작으로 『무정』, 『개척자』에 이어 자기가 살아온 시대의 문제를 다룬 본격적인 장편소설이다. 그 시기의 역사소설로는 1926년 『마의태자』, 1928년부터 1929년까지의 『단종애사』, 1931년부터 1932년까지 연재한 『이순신』 등이 있다.

또 그는 당대를 배경으로 총 3부작의 『군상』을 썼다. 1부 ‘혁명가의 아내’에서는 아내에게조차 버림받은 좌익 혁명운동가의 무력하고 비참한 최후를 빈정대는 투로 그렸고, 2부 ‘사랑의 다각형’에서는 간호원을 주인공으로 해서 젊은 세대의 생활태도·사랑·운명의 변화를 형상화했다. 3부 ‘삼봉이네 집’은 농촌 청년이 살길을 잃고 항거하다가 국내에서 시련을 겪고 간도에 투옥되었다가 투쟁하려고 나서는 내용인데, 사회주의 운동과는 노선이 다른 자기 길을 택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처럼 그는 작품 내내 좌익 항일운동에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천명하는데 이념문제를 초조하게 생각한 탓에 작품의 짜임새를 돌보지 않은 부분이 드러난다는 평가를 받는다.⁴⁾

1932년에서 1933년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한 『흙』은 농촌계몽운동을 위해 헌신하는 내용의 야심작이며, 민족운동의 노선을 둘러싼 논란에 깊이 참여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로 옮겨간 그는 『유정』, 『그 여자의 일생』, 『이차돈의 사』, 『애욕의 피안』 등을 거쳐 『사랑』에 이르러서 남녀 사이의 사랑이 그릇된 욕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육신을 초월한 순수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자기 방식의 철학을 구현한다. 그러나 이상주의가 고양될수록 현실과의 괴리가 더욱 확대되었고, 종교적 수련과 희생의 자세로 현실을 초월하는 『원효대사』로 자기에게 닥치는 비난을 막아보려고 했으나 기대한 것만큼의 설득력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광수 소설은 근대사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정신적 가치를

4)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한길사, 1986.

자아의 신념으로 세계를 개조해야 한다는 당위를 제시하는데, 그 신념은 그 근거가 매우 박약하기 때문에 결국 무력하며, 세계의 횡포가 견잡을 수 없이 닥쳐와 자아를 고립시키고 패배시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⁵⁾ 해방 후 그는 『꿈』이라는 신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킨 후 『나』, 『스무살 고개』 등 자서전적 소설을 썼는데 그것은 휘절에 대한 참회나 하다못해 변명이라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반발심만 불러 일으켰다. 마지막에는 친미·반소적인 시를 발표하여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기회주의자라는 공격 재료를 주었고 결국 한국전쟁 중 납북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가 근대문학 초기에 남긴 개척자적인 공적은 지울 수 없을 만큼 큰 것이 사실이다.

이광수에 대한 연구사는 한국문학의 연구 지평 위에서 오래 그리고 깊이 있게 축적되어 있다. 김윤식의 『이광수와 그의 시대』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국문학 연구자가 이광수 문학을 거쳐 간다. 그만큼 이광수가 한국 현대문학 형성기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수준과 분량의 문학을 생산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한 까닭으로 이제 이광수 연구는 한 특정한 작가에 대한 탐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학 기반 형성기의 문학적 형상에 대한 일반적인 흐름이요 하나의 상식에 이른 형국이기도 하다. 특히 이광수 문학에 있어서 근대성이나 근대의식에 대한 연구는 더욱 그렇다.

근대의식에 관한 연구 외에도 서구 근대 문명성과 일본 중심주의, 여전히 그에게 하나의 역사적 멍에가 되고 있는 친일문학, 당대의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었던 대중성, 개화 세대의 특징적 인물들을 주목하는 등장인물과 그 내면적 성향, 그리고 작가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적 글쓰기와 자전적 작품 등에 대한 연구가 다기한 학문적 집적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유형의 기존 연구사를

5) 윤명구, 「이광수문학의 평가」, 장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635-643면.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근대의식 문제와 관련하여 충분히 논의한 다음 본론을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미 상식적 차원의 연구 축적에 해당하는 바이므로 동어반복을 피하는 측면에서도 작품에 나타난 근대의식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한다.

3. 개화 세대의 선구로서 주요 단편들

흔히 이광수는 장편 작가로 평가된다. 그러다 보니 그의 단편은 장편에 비해 주목을 덜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단편의 수에 비해 장편이 더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편들보다 장편들이 미학적 성취도가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그의 초기 단편들이 신소설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더러 습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백철의 비평이나 이광수 스스로 자신의 단편을 아직 불완전하고 미숙한 작품이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평가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단편 역시 당시로서는 선구적이었으며 가장 현대적이고 참신한 문장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편소설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 그 정도의 소설 형식을 취했다는 점만으로도 선구자적인 공적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는 이광수의 괄목할만한 단편 8편을 살펴보기로 한다. 단편들 중에서는 연구자들의 주목을 많이 받은 작품을 가려 뽑았다. 근대성의 언덕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향방을 비추는 불빛으로서 그 자격이 약여한 작품들이다.

『어린 희생』⁶⁾은 개화기 이광수의 민족의식과 문체적 특성을 함께

6) 이광수, 『어린 희생』, 《소년》 3년 2권/5권, 1910년 2월/5월.

보여주는 단편이다. 피상적으로 관찰하기에 이 작품은 ‘소년’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배면에는 조부인 노인, 전사한 아버, 그리고 비명횡사한 소년 등 민족 전체의 희생을 동시에 펼쳐 보이고 있다. 전사 소식을 전보로 받은 노인과 소년, 곧 조손(祖孫) 두 사람은 그 원수인 ‘아라사 놈’에게 원수 갚을 생각으로 앞뒤 분별을 잃었다. 집을 뛰쳐나간 소년은 아라사 기병 3인의 손에 죽고, 조부는 이들을 독살함으로써 원수를 갚는다. 그러나 조부는 금방 그들에게도 부모 처자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떠올리고 ‘조물주’를 원망하며 쓰러진다.

이 작품은 1910년 2월에 발표되었고 때는 한일합방으로 조선이 일본에 병탄되기 바로 직전이다. 러시아와 일본이 맞붙은 러일전쟁이 1904년에서 1905년까지이고 보면, 일본에 저항하지 않고 아라사 곧 러시아를 타매하는 이광수의 정치적 친소(親疏)와 그 방향성을 분별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노인이 스스로 독살한 아라사 기병 3인의 주검 앞에서 인간의 삶에 대한 인류애적 보편성을 드러내는 것 또한, 당대로서는 이광수가 아니면 갖기 힘든 시야의 개방에 해당한다. 문체상의 특성에 있어서는 신문학의 물결을 타고 있는 대사와 지문의 적절한 혼용, 사라져 가면서 부문적인 잔류를 나타내는 고어 투의 사용 등 과도기적 특성이 나타난다.

장편소설 『무정』은 1917년에 발표되어 한국문학사에 널리 알려진 장편소설이고, 여기서 다루는 단편소설 『무정』⁷⁾은 1910년에 발표된 단편이다. 이 작품의 말미에는 “마땅히 장편이 될 재료로되 학보에 게재키 위하여 개요만 서한 것이니 독자 제씨는 양찰”하라는 주석이 붙어 있다. 그런 만큼 이 단편의 줄거리는 완결된 것이 아니고 이야기의 들머리만 늘어놓은 형국이다. 결혼을 잘못하여 나이 어리고 책임성 없는 남편을 만나고 결국은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아내

7) 이광수, 『무정』, 《대한홍학보》 제11호/12호, 1910년 3월/4월.

를 주인공으로 했으니, '무정'이라는 제목은 봉건적 제도의 악습 아래 인정의 토대조차 바로 세워 보지 못하는 무정한 삶의 형식을 말하는 듯하다.

장편소설 『무정』이 신문물의 유입과 기존 제도의 상충을 헤치고 새로운 세대의 변화하는 의식을 반영하지만, 이 『무정』은 궁극에 있어서는 비극적 결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이광수가 생각한 '무정'은 개인의 감상이 아니라 시대정신의 한 표현으로 읽힌다. 이 작품에서도 다른 장편 『사랑』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의 우주론적 해석을 내놓던 바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인 '부인'의 원망이 남편 한명준을 넘어 전 남자, 전 인류, 마침내 자기의 존재에까지 이르는 범주와 시야의 확장을 노정한다. 과거 봉건시대의 부녀들이 남편의 축첩을 두고 온갖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인고로 일관한 데 비하면, 이 여성의 결사적 의사 표현은 그것 자체로 신세대적 사고라 할 만하다.

『소년의 비애』⁸⁾는 장편소설 『무정』과 같은 해인 1917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무정』에 나타난 구시대적 사랑 및 결혼에 대한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종매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문호가 아끼고 사랑하던 난수의 결혼 문제에 접근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작품은 『무정』과 달리 국한문 혼용체로 씌어졌으며 『무정』에 비해 소설적 구성이나 문장이 미숙하고 거칠뿐더러 주제도 선명하지 못하다. 하지만 『무정』에서 자유연애 사상을 통해 계몽주의 사상을 보여 주려 했던 것처럼, 이 작품에서도 조혼의 악습을 문제 삼음으로써 당시 혼인 제도나 사회의 인습을 비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작가의 계몽주의 정신이 짙게 배어난다.

또한 이 작품은 작가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로, 소년 시절에 그의 종매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사실을 소설화한 것으로

8) 이광수, 『소년의 비애』, 1917년 1월 10일.

알려져 있다. 이것을 체험할 당시 이광수는 얼굴도 모르는 채 부모의 결정에 따라 혼인해야만 하는 당시 결혼 풍습과 한 사람의 삶보다 양반의 체면치레가 더 중요했던 풍속에 대해 강한 저항감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저항감이 『소년의 비애』, 『무정』 등의 작품을 잉태하게 했으며, 이광수가 그의 많은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숙명론적 인생관으로부터의 탈피나 조혼 타파 혹은 관습적 결혼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을 배태하게 하였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어린 벗에게』⁹⁾는 중편 분량의 소설이며, 제목에 명기된 ‘어린 벗’은 그야말로 어린 나이의 벗이 아니라 고국에 둔 연인이리라는 것이 소설 전체를 통독한 후의 판단이다. 이 작품은 그 벗에게 보내는 4편의 서신으로 되어 있고, 각기의 서신이 전개되는 동안 이야기의 무대가 상해, 동경, 바다의 난파선, 블라디보스톡, 소백산 관동열차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에는 일본 유학 중에 만난 처녀 ‘김일연’에 대한 연모가 잠복해 있다. 그러기에 이 작품은 궁극적으로 작중의 화자 ‘임보형’이 어떻게 김일연을 만나고 그를 사랑하게 되며 온갖 우여곡절 끝에 그 사랑을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는가를 말하는 심경의 기록이다.

화자는 조선에 이미 아내를 둔 유부남이며 그가 처음 사랑하기 시작한 김일연은 열일곱의 어린 처녀이다. 그런데 이 양자 사이의 사랑을 진척 시키자면 도리 없이 조선인의 사랑에 대한 의식, 혼인제도에 대한 이광수 류의 변설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 남녀 상호간의 진정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혼인은, 다만 부모 또는 제도가 견인한 가치 없는 계약일 뿐이라는 신랄한 비판이 도도한 자기주장으로 제기된다. 이러한 사상의 피력은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수준일 수 있으며 거기에는 개화론자로서 이광수의 면모가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임보형과 김일연이 세계 각지의 넓은 무대를 배경으로

9) 이광수, 『어린 벗에게』, 《청춘》 제9호/11호, 1917년 11월.

하여 극적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소설적 구성이 거기에 결부되어 이 소설을 이룬다. 소설의 결미는 이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운명에 맡기는 것인데, 이 대목은 곧 개화세대 사랑론의 향방과 한계를 함께 말하는 셈이 된다.

『윤광호』¹⁰⁾는 한국 현대문학에서 처음으로 동성애 문제를 다룬 소설이다. ‘윤광호’라는 제목의 인물은 동경 K대학 경제과 2년급의 학생인데, 학교의 특대생으로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조선인으로서 최초의 박사학위를 얻으려 공부하고 있다. 그의 멘토로 등장하는 ‘김준원’은 윤광호에게 삶의 방향을 지도하는 연장의 학생이다. 점차 윤광호는 그에게서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리하여 끝내 신경증적 병리현상을 보이는 윤광호 앞에 ‘P’라는 인물이 나타난다. 윤광호는 그에게 열렬히 구애하고 거부당하며 결국 자살로 죽음에 이른다.

소설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작가는 P가 남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소설의 결미에 이르러 ‘P는 남자러라’ 라고 마감한다. 다만 윤광호와 유사한 경험을 한 김준원의 사례에 비추어 P가 남자임을 도중에 유추할 수는 있다. 그런데 왜 이광수는 이 소설에서 동성애를 통해 자살에 이르는 괴로운 인생의 모습을 그렸던 것일까. 실상 윤광호의 동성애는 그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끌리기 보다는 마음을 소통할 ‘따뜻한 애정’을 찾아 헤멘 형상이다. 그러한 단절과 불통의 비극을 매설하는 데 동성애를 동원한 것이지만, 이 이야기의 형상은 근대 이래 다변화된 세상의 한 국면을 대변한다. 이광수는 뛰어난 서사적 재능을 발휘하며 윤광호를 죽음의 자리에서 밀고 간 셈이다.

『꿈』¹¹⁾은 작중 화자, 더 확대하여 말하면 작가 자신이 스스로의

10) 이광수, 『윤광호』, 《청춘》 제13호, 1918년 4월.

11) 이광수, 『꿈』, 《문장》 임시증간호, 1939년 7월.

삶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강하게 내보이는 작품이다. 소설 속의 화자 '나'는 두 딸이 홍역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아들을 대동하여 인천 바닷가를 찾았다. 외형적 사건은 거기서 아들과 함께 바닷가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보트도 타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앓고 일어난 딸들이 반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바닷가에서 꿈 꿈과 그에 대한 생각이 소설 분량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중점이 있다. 개화 문물의 한 복판에서 민족의 교사를 자처한 이광수가, 이러한 내성의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화자의 꿈은 '사랑하여서는 아니 될 그리운 사람'을 필두로, '무덤의 땅자' 등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접촉점을 가진다. 물론 여기에 그 반성의 구체적 이야기나 반성으로 인한 태도 변화 등의 진척된 사건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그의 복잡다단한 생각은 다른 작품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류 전체, 우주 전체로 확장된 포괄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다. 특히 이 소설에서는 불교의 교리 등이 맨 얼굴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광수의 세계에 있어서 종교는 다신교적 성향을 띠고 있는 까닭으로 그 불교 또한 작가의 신앙적 방향성을 지시하기 보다는 범박한 정신 수양의 실천적 방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무명』¹²⁾은 감옥체험에 관한 소설로 1939년 1월 《문장》 창간호에 발표되었다. 해방 후 반민특위에 의해 구속된 것은 나중의 일이지만, 1937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광수는 재판 도중 '가야마 미쓰로'로 창씨 개명한다. 소설은 작중 화자 '나'가 병감으로 이감되어 감옥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을 관찰하며 이를 순차적으로 기술하는 형식을 보여준다. 도장 위조, 방화, 사기, 공갈 취재 등 여러 죄목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감옥 속에서 어떻게 서로 충돌하며 또 어떻게 죽어 나가는가를 큰 사건의 굴곡 없이 그린다.

12) 이광수, 『무명』, 《문장》 창간호, 1939년 1월.

중편 분량의 소설에 탑재된 일제강점기 서울 어느 감방에서의 이야기들은, 이광수의 인간 관찰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익히 보여준다. 화자인 ‘나’는 객관적 관찰자로 기능하며, 스스로의 신분이나, 성격, 죄목 등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작가 자신을 대변하는 인물로 추론할 수 있다. 작은 이익에 모두를 거는 죄수들의 원초적 욕망과 갈등을 통해, 그리고 작가가 우주론적 범신론으로 포장하고 있는 종교적 세계관을 그 바닥에 깔면서, 이 소설은 어쩌면 작가의 자리를 정돈하는 하나의 시도로 보이기도 한다. 소설 속의 ‘나’는 동료 수인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박애주의자이며, 감방 안의 삶을 통해 세상을 제유법적으로 판단하려는 이성적 인물에 해당한다.

『길놀이』¹³⁾는 어느 오월 아침, 서울 자하문 밖 세검정 부근에서 ‘조의일 하는 사람’의 길놀이 구경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조의일’이란 그 어의가 분명치는 않으나 무언가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 소설의 문면에 따르면 봄에서 가을까지 밖에 없는 일이며 설 명절이나 대보름이 이들의 기회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월 팔일과 오월 단오가 그들에게 일련의 큰 명절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무슨 두레패 길놀이 쾀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새 옷에 새 조끼에, 여러 악기의 음악에 맞추어 길놀이를 연다.

개화 세대 삶의 한 풍속도를 보여주는 이 소설은, 소식을 알려주는 ‘작은 용이’나 다섯 살 먹은 딸 ‘정옥’과 같은 어린이를 서두에 내세워 편안한 구경꾼의 어투를 끝까지 지속한다. 발표 연도가 1939년인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에도 시연된 조선 서민의 민속 가두공연 관람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단편은 이 책에 실린 그의 다른 작품들과 달리, 시대사적 또는 개인사적 중압감이 거의 없이 세대 풍광을 관조하는 담담한 시선을 느끼게 한다. 이는 이광수의 문학세계가 당대 사회를 배경으로 매우 폭넓게 펼쳐져 있음을 말하는 또

13) 이광수, 『길놀이』, 《학우구락부》 창간호, 1939년 7월.

하나의 증명에 해당한다.

4. 근대의식의 구체적 양상과 두 장편

1) 근대성의 분기점을 이룬 새 시대정신 - 『무정』

『무정』¹⁴⁾은 한국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로 평가되고 있다. 오늘날 신문 연재분과 비교하면 한 회분이 2배가 넘는 분량이니까 꽤 긴 장편이다. 민족주의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민중 계몽을 담고 있는 이 작품은 이인직의 『혈의 누』, 『치악산』 등 당시 신문에 연재되었던 어느 신소설보다도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무정』은 우리 근대문학사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신문학을 결산하는 획기적인 작품으로 이광수의 대표작에 해당된다. 『무정』을 현대문학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는 근대적인 의식과 자아각성이 보인다는 점, 서술이 비약적·추상적인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이고 세밀하다는 점, 선과 악의 이분법적 도식에서 탈피했다는 점, 구어체에 접근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무정』의 문체 가운데 우선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작품이 이광수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순 한글로 씌어졌다는 점이다. 이광수가 『무정』을 통해 보여준 새로운 언어의식과 문체 발달에 대한 기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분명하다. 자신의 술회에서 “문체로 말하면, 그때의 것이 대개 고문체였고 내가 국문체로 쓰기는 『무정』부터 낫습니다”라는 기록이 있다.¹⁵⁾ 이처럼 이광수의 새로운 언어

14) 이광수, 『무정』, 1917년 1월1일부터 1917년 6월 14일까지 126회에 걸쳐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이며 유일한 국한문 신문이던 <매일신보>에 연재.

의식은 우리 문학사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순 한글 문체를 사용하면서 불가피하게 한자를 사용할 경우 그것을 괄호 속에 넣어 처리하고 있다.

그 전의 작품들에서 한문 문장의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국한문 혼용체로 글을 썼던 사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계몽성을 그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 『무정』의 주된 내용은 교육의 중요성, 조혼제도의 문제점, 선각자의 사명과 그들이 사회에서 당하는 고난,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 자녀 중심적 사고의 필요성, 수재민 구호를 매개로 한 민족에 대한 관심 등이다. 또 근대문명에 대한 동경, 신학문에 대한 향학열, 새로운 자유 연애에 대한 찬양, 그리고 기독교 신앙 등으로 집약되는 내용은 당시 독자에게 봉건적인 것에 대한 비판의식을 심어주고 근대 문명을 전하는 복음서 역할을 했다.

『무정』은 크게 두 가지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구조적 특징은 1917년을 전후한 당시의 시대적 진취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계층이 상승적 계층이며 또 몰락적 계층인가를 가늠하는 일과 밀접히 관련된다. 주인공 이형식이 동경 유학에서 돌아와, 남들이 기생집에 다니는 동안 책을 사서 읽는 등 끊임없이 자기 수양에 임했다는 것은 그가 상승적 계층임을 말해 준다. 그 지식이나 자기 수양이 과연 현실 타개에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를 따지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그것이 이 시대를 지배한 진취성임에는 틀림없다.

두 번째 구조적 특징은 ‘교사-학생’의 관계 구조이다. 『무정』에 나오는 주요인물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교사-학생 관계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첫 장면부터가 선생을 가르치러 가게 되는 이형식의 묘사이며, 선생-형식 외에도 노파-형식, 영채-병욱, 영채-기생 율화 등의 관계가 모두 사제관계이다. 이광수에 있어, 그리고 이 시대에

15) 이광수, 『작가로 본 문단의 십년』, 『이광수 전집』 제16권, 395면.

있어 가장 정결하고 신성한 것은 오직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만 있었음을 이 작품은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 작품의 계몽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¹⁶⁾

하지만 이 작품이 발표될 당시, 독자들에게 대단한 호응을 불러일으키며 수용되었던 계몽주의는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 또 다른 상황을 맞게 된다. 교육과 계몽에 의해 사회가 변화할 수 있으리라는 신념이 힘을 잃게 된 것이다. 춘원이 조선 민족의 자기비하에 기반한 『민족개조론』을 써서 반발을 불러일으킨 일은 계몽주의의 쇠퇴를 잘 보여준다. 한편 그의 계몽주의는 그것이 민중의 주체적 역량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중을 계몽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내포한다. 그것은 춘원의 민족주의가 가진 본질적 한계와도 상통하는 것이다.

2) 개화세대를 향한 우주론적 사랑 교범 - 『사랑』

예술가와 인격자를 동일한 수준으로 치환될 수 있는 절목으로 간주하고 삶의 한 방편으로 문학을 가늠하며 문학 속에서 삶의 방향성을 탐색해 온 그의 작품들처럼, 첫 전작장편 『사랑』¹⁷⁾ 역시 소설적 발화법을 통해 차원 높은 정신적 경지를 추구하려는 도덕적 교화론의 소산이다. 『사랑』은 1938년 8월에 상편이 탈고되고 김동인이 이광수에게 자살을 권고하러 갔던 10월에 간행되었으며, 이듬해 4월에 하편이 탈고되었다. 상·하편으로 나눈 단계의 구분과 각 편의 목차를 나눈 감각만 해도 그 이전의 다른 작가들이 모방할 수 없는 질적 변별성을 보여 주고 있다.

16) 정명환, 『이광수의 계몽사상』, 《문학과지성》, 1973, 봄호.

17) 이광수, 『사랑』, 첫 전작 장편소설로 1939년에 발표되었으며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왜경에 검거되어 반년 간 옥고를 치르고 병보석으로 출감 후 병석에서 집필.

『무정』이나 『흙』과 같은 작품이 그러하듯이 소설의 담화 구조를 이끌어 나가는 이는 궁극적으로 중심인물의 등 뒤에 서 있는 전지적 작가이며, 따라서 『사랑』의 교술자 안빈은 작가 자신의 이상이 투여된 작중의 대역자에 해당한다. 그의 삶과 문학이 전시대의 그것에 일대 개혁을 감행한 것이면서 한편으로는 다음 세대에 비판적 극복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있어서도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정돈된 이성에 바탕을 둔 박애주의가, 이 작품 하나로써 톨스토이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김문집의 사뭇 격양된 감탄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되는가 하면, 비현실적인 설교 투의 당위론이 수양동우회 사건 기소 중의 내면적 고민을 위장하는 수법에 불과하다는 김동인의 날카로운 비난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 소설의 주된 동력은 의사 안빈과 그를 지순한 감정으로 사랑하는 간호사 석순옥에 부하되어 있다.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중등학교 교원 자격까지 갖추고 있는 석순옥은, 안빈의 글을 읽고 10년 전부터 그에게 심취하여 안빈 없이는 사는 일조차 무망하다고 느낄 정도이다. 석순옥은 뒤늦게 간호사 자격을 얻어 안빈의 병원에 취직하고 안빈의 부인 천옥남이 병석에 누워 있을 때나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정성을 다해 그를 시중든다. 석순옥이 허영과 결혼하는 대목도 허영에 대한 사랑이 개재된 것이 아니라 단지 안빈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이다. 만약 이러한 사건 전개가 전체적인 일관성을 확보하려면, 허영과 결혼한 후의 석순옥이 안빈을 보살피려는 노력을 지속한다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 어떤 양상으로도든 갈등하는 심리 상태 및 행위를 표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석순옥은 비록 당분간이지만 너무도 쉽사리 새 삶에 안착해 있고, 내면적인 갈등보다는 외면적인 조건의 변화에 의지하여 그 늪을 빠져나오고 있다.

마침내 허영이 죽고 나서 다시 안빈의 곁으로 돌아온 석순옥은,

그 말미에 이르기까지 계기가 허락될 때마다 인간적인 사랑의 대상 이면서도 성자와도 같이 변동이 없는 교술자 안빈으로부터 설법을 듣기도 하고 또 스스로 깨우치기도 하는 형식을 빌려 지고한 사랑의 논리를 체득해 나간다. 물론 석순옥의 이러한 내면적 성장은 작가가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향해 요구하는 인식의 확장과 동계의 맥락 아래에 있다. 말하자면 작가의 사고와 사상이 담화의 진행을 압도하여, 소설의 전 과정이 결국 결말에서 제시되는 네 가지 우주론적 사랑 논의로 다가서는 길목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것이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옳음의 씨를 주시고 이것이 돌아나도록 힘써 주시는 부처님(하느님)이시고, 둘째로 우리가 질서 있는 사회에서 살고 옳은 일을 하도록 하는 조국님, 셋째로 부모님, 넷째로 중생 즉 남남이 곧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고마운 절을 드릴 분”이라는 안빈의 결론은, 당초 석순옥 개인에게서 발아한 사랑의 싹이 결코 단편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일 수 없다는 작가의 생각을 함축하고 있다.

이 소설 전반을 통하여 단 한 구절이라도 안빈이 석순옥에게 감성적인 사랑의 말을 토로하는 장면을 볼 수 없다. 그것은 이 소설이 여러 가지 극적인 사건의 굴곡들을 배치하고 있으며, 그 행간을 채우는 핵심에 있어서는 도덕적 사랑론을 표방하는 근엄한 성자의 얼굴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안빈은 석순옥의 동료 박인원을 통하여, 석순옥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천지가 여러 억만 번 부서져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혼인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 남편과 살다가 죽은 다음 부활한 뒤에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신약성서의 문답법을 인용한다. “사람보다 이상 경계에 가면 벌써 남성이니 여성이니 하는 구분이 없어져 버린다”는 강론은, 이미 범속한 세상사의 저변을 초탈하여 육탈이 끝난 이상주의적

사랑론으로 진입해 있다.

이와 같은 면모는 이광수가 수양동우회 사건 기소 중의 가혹한 삶의 고비에 『사랑』을 집필하였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그 고통스러운 질곡을 대사하는 역설적 심리 상태를 이 소설에 탄력성 있게 장치하였을 것임을 유추하게 한다. 여기서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안빈의 도저한 논점을 지탱해 주는 이론적 근거로 여러 종교적 교리의 편린들이 제각기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곳곳에서 하느님께 빌고 부처님께 빈다는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확고부동의 교사 안빈이 아내를 위로하는 데 있어서도 하느님께 맡기라고 권유하는 한편 입에서는 염불이 흐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과율의 정당성과 탐·진·치에 대한 경각심이 주요한 개념이 되기도 하고, 시편 23편이나 찬송가의 문면이 그대로 작품의 표면에 떠오르기도 한다. 또한 유학의 삼강이 인류사회 모든 도덕 관계의 버리이며, 그 다음 단계 곧 신성의 경계야말로 석순옥에게서 찾은 안빈의 지향점이라는 해명이 부여되어 있기도 하다.

우리는 이광수가 왜 이처럼 한 작품 가운데서 기독교·불교·유학의 가르침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기독교는 절대자의 존재와 경전의 절대 타당성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배타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종교와 공존할 수 없는 교리가 명백하게 확립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소설에서 이광수가 끌어 오고 있는 종교적 교리는 그 종교의 본령에 충실한 것이 아니며, 자신이 주창하는 우주론적 사랑의 개념을 떠받치기 위하여 편의에 따라 나열한 백과사전식 자료일 따름이다. 기실 서로 다른 종교적 인자의 공통점을 한 작품 속에 통어하는 지적 응용력도 당대에 있어서는 개화·개명의 진취성을 밑바닥에 깔고서야 가능하다 할 터이지만, 각 단락들의 구체적 세부를 이루는 자잘하고 잡다한 이야기들도 한 선각자의 대중 교화 의지라는 범주를 한 치도 넘어서지 않는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한국문학 근대 초입의 시기에 대표적인 작가로 독보적인 좌표와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이광수와 그의 문학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 그의 대표적인 소설 작품들을 연구하고 그 의의와 가치를 밝히는 일이 곧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근대적 의식을 구명하는 일과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성격과 전반적인 작품세계를 살펴본 다음, 그가 남긴 주요한 단편소설 8편, 그리고 근대문학의 시발로 판단되는 장편소설 『무정』, 첫 전작 장편소설 『사랑』을 분석의 대상으로 했다. 이광수의 주요한 단편 소설들은 모두 개화 세대의 다양한 근대의식을 여러 유형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동안 그에 대한 연구가 주로 장편소설에 집중해 있었던 만큼 향후 새롭게 주목해 보아야 할 연구의 영역이라 할 것이다.

장편소설 『무정』은 한일합방 후 일제 탄압 아래 신음하는 동포의 민족주의 사상을 밑바탕으로 1910년대의 시대상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작중 인물들의 대부분은 외국유학까지 마치고 돌아온 지식계급이었는데 이들은 당시의 독자에게 이상과 동경의 대상이기는 했으나 대중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점은 결함이 되었다. 또한, 작중인물인 이형식과 김선형은 막연한 인텔리 근성으로 인해 민족적인 각성을 구호로 했지만, 당시의 민중의식을 포착하지 못했고 관념적인 이상주의로 시종일관 했다. 그 결과 이 소설은 시대의식과 민중의 고민을 포착한 리얼리즘의 소설이 아닌 계몽문학 또는 이상주의 문학으로 규정되고 또한 내용과 형식면에서 신소설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세련된 언문일치의 문장으로 구성이나 대화 장면 묘사 등 현대소설적인 조건을 갖추고 봉건적 잔재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3·1 운동 이후 한국소설을 가능케 한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무정』이 그러했던 것처럼 장편소설 『사랑』 또한 고소설이나 신소설의 전통적 서술 방식에 젖어 있던 당대의 문학적 감각에 일대 혁신을 요구했다. 이광수가 개간하고 있던 미지의 세계와 그 도구로서의 대사 및 묘사의 방법 등속은, 가히 획기적이고 폭발적인 감응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이를 축약하여 우리 문학의 근대성을 개척한 공로로 일컫는 것이며, 비록 오늘날의 세련된 시각으로 검증할 때 삼류 통속소설의 외양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확정된 성과로 인하여 이광수와 그의 문학을 우리 문학사의 소중한 한 징검다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사랑』에서 볼 수 있는 생경한 외국어의 남발, 자유연애사상 및 독신주의의 존립 가능성, 당대 지식 계급 청년들의 형상이 대중적 지지 기반을 조성하고 석순옥이나 안빈의 성격이 갖는 평면적 성향도 별다른 거부감을 촉발하지 않는 상황이 말하자면 당대 의식의 수위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글에서 살펴본 이광수의 주요한 단편 및 장편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이 개화기 근대의식의 여러 양상은 우리 문학사 뿐만 아니라 민족사에 있어서도 주요한 분기점이 아닐 수 없다. 이광수가 그의 문학을 통하여 그리고 『사랑』의 ‘자서’에서 경구처럼 제기하는바 끝없이 높은 사랑을 찾아 향상해야 한다는 사회 개량의 사명감을 통하여, 우리 역사와 민족을 향해 내던진 육성에는 한 시대의 중심을 울리는 통렬함이 있다. 그러하기에 그의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의 행적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를 아무런 유보 조건 없이 폄하할 수 없으며, 현대문학 1백 년을 맞아 그가 남긴 대표적인 작품들을 다시금 진지하게 되새겨 보는 일이 요구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 정명환, 『이광수의 계몽사상』, 『문학과 지성』, 1973, 봄호.
성현경, 『‘무정’과 그 이전 소설』,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1975.
한승옥, 『이광수 연구』, 선일문화사, 1984.
김봉균 외 2인, 『한국현대작가론』, 민지사, 1984.
동국대학교부설 한국문학연구소편, 『이광수 연구』, 태학사, 1984.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한길사, 1986.
장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김재용 외, 『한국 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이동희, 『한국 소설의 이해』, 영남대학교출판부, 199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춘원 이광수 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4.
김중희, 『개화세대를 향한 우주론적 교범—이광수의 『사랑』』, 『위기의 시대와 문학』. 세계사, 1996.
김중희 외, 『자유연애와 근대문학에 대한 동경』, 『한국현대문학 100년 대표소설 100선 연구』, 문학수첩, 2006.
김중희 편, 『이광수 소설선』, 지식음만드는지식, 2013.

<Abstract>

The Aspect of Modern Consciousness Shown in
Lee Kwang-Soo Literature
—Focus on Major Short Stories,
『Heartless』·『Love』—

Kim, Jong-Hoi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spect of modern consciousness shown in Lee Kwang-Soo's literary works. The social circumstances of the time and his reaction are all intimately related to modernism and modern consciousness; exploring his works is the same as looking into Korean modern history as well as the literary background. First, the generational impact, the writer himself and his literary world, the second is to closely investigate his modern consciousness reflected in different works. Major short stories, novel 『Heartless』 and 『Love』 were chosen.

The short stories were hidden beneath the novels. They were short in numbers and less of aesthetic achievement. Yet the style of composition was new to the era and opened a paradigm of short story writing. The study chose the major eight which are worth to look into and in the spotlight of researchers. These are more than displaying the modern ideas but suggesting a fresh start of another generation.

『Heartless』 which was the first in modern Korean literature as a novel is not about realism discussing periodical awareness and public



agony but enlightenment and idealism. Also, it still resides in the category of New Novel for its content and format. Yet the refined sentences and the description of a conversation which are the factors of modern novel and overcoming of feudalism in the story all brought together to make it as a new Korean novel after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The modern consciousness shown in the story does not belong to the writer himself but signifies the direction of coming era.

As 『Heartless』, 『Love』 also stands up for the innovative style of writing. The unknown field Lee Kwang-Soo was reprinting and the equipment such as the dialogue and way to portray it was ground-breaking and drew explosive response from the public. In sum, his contribution is developing the modernism in Korean literature and becoming a precious stepping-stone even with the third-rated common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twenty-first century.

Key words: Lee Kwang-Soo, The flowering time, Modern consciousness, Heartless, Love

투 고 일 : 2017년 1월 29일 심 사 일 : 2017년 2월 15일-2월 27일
게재확정일 : 2017년 3월 4일 수정마감일 : 2017년 3월 10일